

우리 집은 가난했다. 그래서 누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기 위해 공장에 취직했다. 부모님은 장남인 내가 성공해야 한다며 나를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로 유학을 보내셨다. 나는 이런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부담스러웠고 누나에게 미안했다. 그래서 나도 학교를 그만두고 취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누나에게서 편지가 왔다. 누나는 내가 1등을 한 성적표만 받으면 누나가 1등한 것처럼고 무더운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전혀 힘들거나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서울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나를 생각하면 학교에 다니는 누나의 친구들도 전혀 부럽지 않다고 했다. 나는 이런 누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더욱 더 열심히 공부했다. 시험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게 기다렸다. 나는 의대에 입학했고 지금은 의사가 되었다. 내 인생에서 부모님과 누나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